

하용조 목사 시편연구 2 - 2

(시편연구 2 - 1 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1996. 10. 13)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감사의 시편들

오늘은 감사의 시편들을 몇 가지 골라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구절이 제일 많은 것이 몇 편입니까?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입니다. 시편에서 제일 짧은 시편은 117편입니다. 그리고 117편은 신구약의 딱 중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목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데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데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를 보겠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찬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면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춤만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면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다 토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악한 말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올 수 없는 것처럼 찬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고 예배가 내 안에 가

득 차게 하고,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뱅뱅 돌다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다 말씀을 놓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다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악한 것,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은 기뻐하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던 것이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 . . '

시편을 곡조로 부르면 이렇게 좋습니다.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고백입니다. 하용인 선교사가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가 작곡을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곡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것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팔은 튼튼하십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원수가 나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기자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둘째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객관적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를 위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온 몸이 저리게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언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와 '영영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와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신 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 상상력이 피곤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측량할 길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행사와 그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셨던 분이십

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하신 일과 능력을 보고 찬양할찌어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목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 안에 더 크게 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기도가 더 커지고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위대함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하신 일과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거룩과 능력과 위대하심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목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목상했습니다. 깊이 목상했습니다. 목상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마시고 먹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마시고 그냥 먹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내 것' 하고 먹으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면 나의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먹고 목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주의 의를 말하며 기뻐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다 고치시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은 단지 천국을 거부한 자가 가는 곳일 뿐입니다.

율법적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소풍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 없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 좀 써보십시오. 엄격한 분이 아닙니다. 율법적 관계의 분이 아니고 은혜의 관계인 분이십니다. 가슴을 열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나를 잃어버리시지도, 나를 포기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 분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은 춤을 추고 입은 노래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9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만물에게, 만유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지금 마음이 좋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므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그렇게 노래하니 내 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비참해 질 것입니다. 우울하고 비판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오늘부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들기 전 찬송가를 5곡씩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11절 이후부터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나라에 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춤을 출 수 밖에 없고, 뛰며, 소고치며, 여러 악기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찌어다' 라고 선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왜 시끄럽게 저러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은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차길 바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행복한 사람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도은미사모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부부가 공부하며 가난하여 돈이 너무 없을 때 브라질의 봉제공장에서 16시간씩의 노동을 했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쌀거리를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것이 마지막 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밥을 지어 먹고 자고나면 그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집 앞에 쌀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간증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쌀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극한 절망 속에서, 나는 자살 할 수밖에 없는데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에 열심

을 내십시오. 전도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불러보십시오 은혜가 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외 그 어떤 생각도 우리 마음에 들어 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계속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대일 교재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또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에 손 짚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나 한 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보호해주시고 악인을 다 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원히 영영히 송축할찌어다.' 아멘.

146편 쪽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도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한 번 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도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쥐꼬리만한 배경, 돈, 뺨, 건강, 이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객을 보호하시고, 배 고프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참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 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지 않겠습니까? 오래오래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두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절망과 낙담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